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0호 【루게 제24703호】 주제103(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인양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였다.



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결작품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1현관 5층 1호, 46층 1호와 기단층부분에 건설한 상점과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의 부엌과 식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로경준 동지, 김진근 동지를 비롯한 건설부대 지휘관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서현 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당비서 백민형 동지가 맞이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어 후대교육 사업에 한생을 목숨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

이 내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었으며 건설력량투입과 설계, 시공, 자재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방대한 건설공사를 최단기간에 질적수준에서 끝냄으로써 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살림집건설을 완공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개 호동의 46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대동강에 떠있는 뭇배갈다고, 외벽에 열선 반사판유리까지 씌우니 정말 멋있다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

사실, 서재, 부부방 등을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이 시공했으며 살림방벽면처리도 세련되게 하였다고, 특히 전실입구처리를 잘하라고 하였는데 개구 좌우면에 장식장을 설치해주니 특색있다고 평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 《E. C》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력사는 오늘도 전한다, 열혈투사들의 그 걱정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 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이년 8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라도제국주의동맹!

얼마나 하찮은 사연들과 잊지 못할 추억들이 이 말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

추억의 노를 저어 《E. C》가 첫 고고성을 타치던 저 멀리 화천의 언덕으로 마을 달려가보면 우리의 눈앞에 제1면적 때오르는 모습이 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격정적 회담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로인 《E. C》의 첫 성원들,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한평생을 이어 주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던 열혈의 투사들의 잊을수 없는 모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E. C》의 산이들이 88년전 휘발하강가에서 목청껏 부른 노래, 그것은 영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였으며 동지에 대한 노래였다.

이런 전우애, 동지애에 기초하여 만 단을 헤쳐왔던 《E. C》와 더불어 흘러온 우리 당의 백송의 력사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쓰으신 곧 제2의 나이비를 얻는다는 신조로 삼으시고 동지를 얻는 길, 동지를 위한 길이요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었으며 수천리 밭갈도 마다하지 않으시었다.》

조선혁명은 동지애로 뜻을 올린 력사에 투쟁없이 성스러운 혁명이다.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동지애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있어서 조국은 곧 동지였고 동지는 곧 조국이었다.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목숨바쳐 헤쳐갈 결사의 각오를 가진 전우들을 묶어내려 혁명조직을 내고 그들에 의거하여 위대한 력사행적을 벌려가신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었다.

그이께서는 동지를 얻기 위한 투쟁의 첫 자욱을 화성의속에서 때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속시절에 생사를 함께 할 혁명동지로 키우신 한사관사람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첫 핵심플간들로서 절세의 위인을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불패의 전위대열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속시절에 되새겨보노라면 거제의 피타는 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새혁의 혁명조직을 결성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이 승업하게 안겨준다.

주제 15 (1926)년 10월 17일

당시 화성의속의 총관이었던 김시우의 집으로 열혈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최창걸, 김리갑, 리재우, 강병선, 김원우, 박근민...

생전에 늘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이 없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수 없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동지를 키우신 청년들이었다.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정으로 참으로 뜨거우시었다.

일찍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께서 세 력과 투쟁, 시대와 교조로 열 특된 선명한 민족주의운동으로는 조국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그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이시었다.

울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게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 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세 세대 열혈청년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었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

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 세대 청년들이 력사의 진군 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혁의 정치적생명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면서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세계에 착각과 압박이 없는 새 세상을 건설할것을 천명하시었다.

참으로 그것은 처음으로 조선혁명이 나아가갈 길을 밝힌 주체적인 혁명강령의 결성시절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혁명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었으며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여놓는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전두에 모신 세 세대 혁명가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담판자로 시대의 앞장에 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뿌리가 지심깊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E. C》의 첫 성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결코 순탄치 않을것이며 전진도상에는 돌과찌어려운 애로와 난관도 허다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라도제국주의동맹의 열혈청년들은 강한의 의지와 혁명적투쟁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며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

그때 최창걸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을 라도제국주의동맹 맹원이라 높이 모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E. C》가 결성되던 날을 추억하시며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민만

지 않은 인물들이었다고,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 문분을 쓰라고 하면 문분을 쓰고 노래를 지어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수 있는 끝끝한 재목들이었다고, 지금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하신것처럼 《E. C》의 산이들은 우리 혁명기 뜻을 올렸던 그 시기 육탄이 되어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나간 투사들이었다. 조선민족이 낳은 가장 우수한 열혈의 혁명가들을 위한 참다운 위대한 수령님의 첫 혁명전우들이었다.

유구한 인류 력사의 어느 갈피를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에 벌써 비범한 천리해안의 예지, 거창한 포부와 리상으로 충만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참다운 세 세대 혁명가들로 주체혁의 혁명적전위조직을 결성하시어 자주성의 기치아래 새로운 시대를 펼친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천체함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의 운명을 구원할 신족의 태양이시며 그이를 받들 때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뼈사담도 있었지만 모두가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E. C》의 첫 성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결코 순탄치 않을것이며 전진도상에는 돌과찌어려운 애로와 난관도 허다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라도제국주의동맹의 열혈청년들은 강한의 의지와 혁명적투쟁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며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

그때 최창걸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을 라도제국주의동맹 맹원이라 높이 모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E. C》가 결성되던 날을 추억하시며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민만

백전백승하는 조국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곧 조선혁명의 신조를 간직하고 수령님을 받들어 열혈의 심장을 바친 김형, 차광수동지들을 비롯한 《E. C》의 산이들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따라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력사적시기가 도래한 오늘 휘발하강가에 울리던 혁명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는 새기를 이어 끊이지 않는다.

《E. C》의 혈통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수천수만의 동지들이 집결된 성세를 이루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지애로 흘러온 우리 당의 력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불멸의 의지를 담담이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우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동지애로 뜻이 완성해나간다고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당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건설국가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꽃이 번성하는 동지애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돌격전으로 부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공동된 사상감정이요 높은 정신력이다.

어버이수령님 마련하신 《E. C》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 믿음을 받들어 조국명우에 사회주의건설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울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전우들의 대부대가 있어 88년전 휘발하강가에 울리던 노래소리 끝없이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백영미

### 조선의 밤아들들과 더불어 혁명의 불꽃이

불멸의 혁명승가 《조선의 별》은 조선혁명이 닦은 울리던 첫 시기에 《E. C》의 산이들이었던 세 세대 청년혁명가들이 높이 부르던 태양청송의 승가이다.

주제 17 (1928)년 10월 김형직은 동지들 앞에서 어느때 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었다.

《동무들! 지금부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어떤 유명한 시인이나 음악가가 창작한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지어본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 세대 청년혁명가들의 열화같은 청송의 거세한 불꽃이 있습니다.》

###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첫 당조직의 성원들은 《E. C》의 성원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당의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E. C》의 강령규약에 세 세대 혁명가들의 최종목표와 당면투쟁과업이 명백히 밝혀져있고 카를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과 전략방침들에 가야 할 길과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다.

주제 19 (1930)년 7월 3일 카를의 진행회에서는 우리 당의 태어났고 씩씩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었다.

### 첫 무장조직

선군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력사의 갈피에는 주제 19 (1930)년 7월 6일이 날고있었다.

뜻깊은 그날 이룩한 고구수에서도 조선혁명가들의 첫 혁명적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성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자기의 적극적인 정치건설활동으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기관을 육성하며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경험을 축적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본사기자 백영미

## 고키한 추억, 불변의 신념

주제 95 (2006)년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도 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8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은 나라가 《E. C》와 더불어 백송을 아로새겨온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력과 존엄,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감지없이 둘러쳐보는 그 시각 또 하나의 위대한 력사가 새겨지고있는줄 사람들은 그때 다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E. C》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E. C》결성 80년을 맞는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었다. 바람새한 화천의 언덕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혁의 혁명조직인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어 당의 뿌리를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추억이 더욱 뜨겁게 새겨

지시었다.

일찍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께서 세 력과 투쟁, 시대와 교조로 열 특된 선명한 민족주의운동으로는 조국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그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이시었다.

울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게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 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세 세대 열혈청년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었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라도제국주의동맹이라는 이 명칭 하나만 놓고도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잘 알수 있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벌써 세계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은 위인들의 위인이시라고 뜨겁게 추억하신 위대한 장군님.

혁명적전진선의 성스러운 력사를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있는 《E. C》의 결성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

우리 당의 뿌리, 선군의 시원, 단결의 전형, 혁명승리의 기치! 일군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해마다 맞고보면 10월 17일이었지만 《E. C》의 의의와 력사적지위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생각해본적 없었던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환벽한 정식화였다.

《E. C》의 전통이 있어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주체혁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군대가 무적불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E. C》를 뿌리로 하여 우리 당은 영도자의 두리에 당과 군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었고 조선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을 것이다.

장내에는 걱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E. C》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만단사연들이 눈앞에 어려와 모두가 심장은 새차게 놀뛰었다. 위대한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력사를 위대한 장군님 따라 더욱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가 새차게 맥박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E. C》결성 8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고보니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E. C》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걸어온 길도 멀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멀다고 하시며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E. C》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수령님의 뜻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

장병 《E. C》와 더불어 우리 당을 백송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력사의 한페이지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지는 감동깊은 순간이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 언덕에서- 본사기자 찍음

##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회고모임 진행

김정일동지 회고 몽골위원회 결성식과 회고모임이 9월 30일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몽골평화혁신기구,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회, 주체연구센터, 김정일화협회,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민주조선친선대리협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청되었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 르. 하이싼다이와 지리시와 성원 두 나란토야는 결성식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화판으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르. 하이싼다이 가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하며 업적도론화, 사진전시회 등 정지문화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러 진행된 회고모임에서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년에 즈음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행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몽골-민주조선친선대리협회 고문 브. 우르르드훈드브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현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선과의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김정일동지 회고 이말리아위원회가 8일 로마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마리오 까르브넬라가, 부위원장으로 이탈리아의인민공산주의자장 쿠제 부장 알폰소 갈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유럽지역의 정당, 단체들의 연합토론회와 회고모임 등 정치문화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들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당건설혁명도업적은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스웨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조선 인민은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만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 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앙골라위원회 위원장제리 엘리스 디켄코프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창건 68년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조선 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영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단마르크, 스웨덴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에게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년에 즈음하여 당신들이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성변명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평강

2014년 10월 13일

배이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콩고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곧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





